

대형사건 심리 줄줄이...분주한 광주 법원

세월호 첫 재판 이어 '귀태가 현수막' 공판

검코·공무원 선거법 위반 등 이번주만 6건

광주지법·고등법원이 이번 주 대형 사건 심리가 줄줄이 예정되면서 눈코뜰새없이 분주할 전망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기소된 15명의 첫 재판을 비롯,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 인사, 기업과 관련된 굵직한 공판이 이번 주부터 대거 재개되면서다.

8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세월호 사건(10일), 광주시 대변인실의 선거법 위반 사건(13일),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이른바 '상품권 깡' 항소심 사건(12일), 광주시 한미합작 투자사업(법인명 검코) 사건(16일),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과 관련된 나주시의 민사 소송(12일), '귀태가' 현수막 게시 사건(10일), 기아차 노조의 손해배상 소송(12일) 등에 대한 공판이 열린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공판은 세월호 선원 이준석(68) 선장 등 15명에 대한 재판. 승객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탈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피고인들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데다, 희생자 가족들도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원은 잔뜩 긴장 상태다. 법원 청사 관리를 맡은 광주고법은 해당 법정 입구에

검색대를 추가로 설치, 법정 출입 절차를 강화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광주시 대변인실 전·현직 공무원 12명도 13일 오후 4시 지법 301호 법정에서 선다. 현재 2차 공판까지 진행된 사건의 본격적 증인 심문 및 증거 조사 등이 진행되면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광주시의 3D 컨버터(3차원 입체영상 변환) 분야 한미합작 투자사업(법인명 검코) 관련 1심 재판도 16일 진행된다. 3월 첫 심리 뒤 열리는 3번째 공판으로 핵심 증인 심문 등이 예정돼 있다. 변호인측은 애초 공무원 증인 채택과 관련, 지방선거 영향 등을 감안해 선거 이후로 증인 심문 등의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12일 오후 2시 고법 301호 법정에서 재개된다. 박 전 시장은 법인가드로 사들인 상품권을 현금화해 일부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재판에 불복, 항소해 지난 4월 첫 심리가 열렸다.

이른바 '귀태가'(鬼胎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광주 자치단체 노조간부 등 4명의 재판도 10일 오후 4시 진행된다. 이외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소송도 12일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으며 전국급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까지 전 노조원 6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4억8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12일 오전 10시 20분 진행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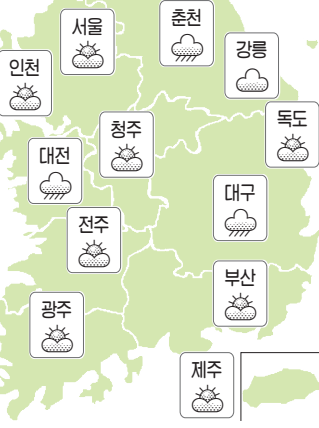
해돋이 05:18 해질 15:37
해짐 19:46 달짐 02:14

미세먼지 '보통'

아침에 안개 끼는 곳 있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많음	18/28	보성	구름많음	17/25
목포	구름많음	17/25	순천	구름많음	18/26
여수	구름많음	18/24	영광	구름많음	17/26
나주	구름많음	17/28	진도	구름많음	16/25
완도	구름많음	17/25	전주	구름많음	18/29
구례	비	17/28	군산	구름많음	17/26
강진	구름많음	17/26	남원	비	18/28
해남	구름많음	17/26	옥산도	구름많음	16/23
장성	구름많음	16/2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	남동~남	0.5
남해	앞바다	동~남동	0.5	남동~남	0.5~1.0
남해	서부	북동~동	0.5	북동~동	0.5~1.0
남해	서부	북~북동	1.0~1.5	북동~동	1.0~2.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10:27	23:23	04:05	16:20
여수	밀물		썰물	
	05:43	18:40	11:51	00:00

◇주간 날씨

10(화)	11(수)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	☁	☁	☁	☁	☁	☁
18/29	20/26	19/26	18/28	18/29	18/29	18/29

◇생활지수

식중독	65
운동	40
빨래	70



실종자 가족 돌보는 간호장교

세월호 참사 발생 54일째인 8일 오후 진도군 진도실내체육관에서 한 간호장교가 실종자 가족을 돌보고 있다. 한편 합동구조팀이 이날 오전 세월호 3층 식당에서 시신을 수습함에 따라 남은 실종자 수는 13명으로 줄어 들었다. /연합뉴스

세월호 3층서 여교사 추정 시신 1구 수습

실종자 13명으로 줄어

8일 세월호 안에서 발견된 시신은 침몰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 갔다가 실종된 단원고 여교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3층 중앙 식당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여성의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

대책본부는 갈색 파마머리, 니트와 면바지 차림, 왼손가락에 착용한 반지 등을 토대로 단원고 교사 유니나(28·여)씨일 가

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책본부는 정확한 신원 파악을 위해 DNA 검사를 의뢰했다. 신분증 등 소지품이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 시신의 상태가 지문 채취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단원고 2학년 1반 담임이었던 유 교사와 동료 여교사들은 상대적으로 탈출이 쉬운 5층 객실에 있었지만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가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 교사와 같은 객실을 쓰며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 아래 층으로 내려간

2학년 2반 담임 전수연(25·여) 교사와 지난 달 20일 3층 식당에서 발견된 바 있다.

한편 대책본부는 애초 승객과 동료를 두고 탈출한 승무원들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예약 현황 등을 토대로 3층 수방 옆 통로에 조리원 이모(51·여)씨가, 선미 쪽에 일반 승객 여성 1명이 각각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색을 펼쳐왔다. 8일 현재 총 사망자 수는 291명, 남은 실종자는 13명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검, 진도 해경 상황실 압수수색

검찰이 진도군청 내 해경 상황실을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한 초동 대응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해경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8일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범대본)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5일 진도군청 지하 1층 해경 상황실을 압수수색, 수색·구조 상황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해경 상황실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목표해경 3009 경비함으로부터 매일 수색·구조 작업 상황을 보고받고 수색계획 등을 수립, 진행해왔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저소득층 학생 교육·복지혜택 늘린다

학습능력 증진, 문화·체험 활동 지원 등

교육부, 모든 취약계층 혜택 받도록 개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높여주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이 학교에서 학생으로 변경돼 전체 저소득층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습능력 증진, 문화·체험 활동 지원, 심리·정서 발달 지원, 건강한 신체 발달에 필수적인 복지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 사업이 도입됐을 2003년 당시 주로 도시 지역에서 저소득층이 밀집한 학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사업비 산정 기준을 '기초생활보장 수급 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로 삼았다.

하지만 소규모 학교는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렵고, 전체 기초수급자 학생이 많지만 교당 39명 이하인 지역에는 지원금이 필요보다 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예컨대 2013학년도에 경기는 취약계

층 학생수가 16만6027명으로 광주(2만9076명)보다 5배가량 많으나 배정된 사업비는 경기도가 79억2000만원으로 광주(108억)보다 적었다.

학생 1인당 사업비를 보면 경기도가 4만8000원으로 광주(36만3000원)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학교 규모나 소재지에 상관없이 취약계층 학생이라면 누구나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 산정 기준을 '전체 취약계층 학생 수'로 개설했다.

또, 취약계층의 대상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 아니라 한부모가족보호대상 학생, 차상위 계층 학생 등도 포함했다. 교육부는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라는 사업 세부영역의 칸막이를 없애 학교가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게 추진하게 했다.

학교가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취약계층 학생을 참여케 하는 방식이 아니라 취약계층 학생이 정상적으로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사업을 프로그램 중심에 학생 수요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했다. /연합뉴스

예향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회사 출·퇴근 버스임대 - 여행지 사전예약
단체여행 버스대절 - 최신버스 저렴한 가격
최상의 서비스 및 예약자 선물증정

예향 YEHYANG TOUR
고객상담 및 예약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805(축석사거리)
TEL.062.944.5775 FAX.062.944.5995

즉시입주 **지리산 노블랜드**

산 좋고 물 좋은 백운산 500고지

콘도/팬션/별장
국유지 필요평수 임대가능
회개장터, 썬게사, 화양사, 노고단 근접

분양가격(공용면적 포함)	대출가능금액
18평(28실) 6300만원	18평 3000만원 가능
28평(26실) 9800만원	28평 5000만원 가능
56평(1실) 1억9600만원	56평 1억원 가능

등기이전 및 상담 - 김주현 법무사
TEL.062)418-9000, H.P.010-4451-6686

지리산 노블랜드 /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53
TEL.061)783-6000, H.P.010-2928-0202